

보 도 자 료

주관 부서	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	담 당	과 장 원인희 담 당 유병철	전화 번호	500-4076 503-7395
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가뭄극복을 위한 지하수 개발허가 한시적 완화

- 건설교통부는 최근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모내기 용수, 식수 등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가뭄대책을 위해 허가를 요하는 지하수 개발도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하였다.
 - 동 조치는 재해 등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 우선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하수법(제8조제1항제3호)에 의거한 것이다.
 - 또한, 건교부는 신규 지하수의 개발보다는 가급적 기존 지하수관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,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는 전국 16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지하수관측망에서 지하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시하였다.
- 한편, 가뭄으로 인한 불법·부실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법령에 따라 지하수 개발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굴착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.
-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가뭄에 따라 전국에서 불법 지하수 개발과 함께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폐공이 양산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,
 -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절차를 신고만으로 간소화함으로써, 지하수 개발허가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,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폐공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공을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다.

※ 첨부 :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절차

< 첨부 >

지하수 개발 허가·신고 절차

□ 지하수 개발관리

-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규모에 따라 시장·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(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)
- 허가 : 생활·공업용수 100톤/일 이상, 농업용수 150톤/일 이상
- 신고 및 기타 : 생활·공업용수 100톤/일 이하, 농업용수 150톤/일 이하

< 지하수 개발 허가 >

- 소요기간 : 착공까지 약 50일
- 허가절차
 - 허가신청(지하수영향조사 포함)→심사→허가→이행보증금예치→공사착공→준공신고→시설확인→준공확인필증

< 지하수 개발 신고 >

- 소요기간 : 착공까지 약 3일
- 신고절차
 - 신고→이행보증금예치→공사착공→준공신고→시설확인→준공확인필증

□ 절차 간소화 효과

- 허가절차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및 심사에 소요되는 약 47일 가량의 행정절차를 단축

보 도 자 료

주관 부서	수자원정책과	담당자	과 장 원인희 사무관 이성해	전화 번호	504-9041.2 500-4076.7
----------	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목 : 가뭄 및 수해방지 긴급대책회의 개최

- 건설교통부는 오장섭 장관의 주재로 건설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,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수자원공사의 참석하에 금년 3월이후 계속되고 있는 가뭄극복대책과 6월중순 이후의 수해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.
-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이번 가뭄의 영향으로 소양강댐, 충주댐 등 전국 11개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은 38%로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
 - 다목적댐에서의 용수공급가능량은 총 26억톤으로 6월말 우기전까지 필요한 용수량 11억톤을 상회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및 댐하류지역은 용수공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.
 - 그러나, 소하천 및 소규모 자체 취수원에 의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용수공급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.
 - 이에 따라, 건설교통부는 한탄강에서 취수하는 동두천 지방상수도가 가뭄에 의한 하천수위저하로 5월13일부터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, 팔당에서 인근 양주군까지 공급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물을 지방상수도 관로를 통해 가압하여 5월18일부터 동두천시에 하루 1만톤씩 공급토록 조치한 바 있다.

□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어 다목적댐 하류지역의 용수부족이 발생할 경우

- 단기대책으로 광역상수도의 비상공급, 다목적댐 용수여유량의 추가방류, 수력발전댐의 용수공급위주로 전환을 검토하고

현재 전국적으로 설치·운영중인 169개 국가지하수관측망을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량 33대의 비상급수지원방안을 강구기로 하였다.

□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으로서는

- 현재 52%인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2011년까지 65%로 확대하고, 경기북부지역의 물부족문제를 조기해소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및 포천군에 2003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기로 하였다.

또한 현재 건설중인 전주권 2차, 울산권, 충남중부권 등 19개 광역상수도 사업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이와 함께, 다목적댐(11개)과 수력발전댐(10개)을 연계운영하여 용수공급능력을 증대하고(연간 4.6억톤)

가뭄 등 비상시에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광역급수체계를 구축기로 하였다.

※ 12개 광역급수권 : 수도권, 영동권, 충청권, 전북권, 주암권, 전남남부권, 여수권, 경남권, 남강권, 울산권, 경북권, 구미권

- 또한 건설교통부는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댐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

※ 물부족은 '06년부터 시작되어 '11년에는 전국적으로 18억톤 부족 예상

- 연내에 「댐건설 장기계획('01-'10)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댐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
- 다양한 수자원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의 확대추진과 함께

지하댐·강변여과수 등을 개발하고, 상수도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해안·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담수화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건설교통부는 아울러 다가오는 6월 우기에 대비하여 현재 진행중인 제방건설, 하도준설 등 수해예방 및 수해복구사업을 우기전에 완공토록 하고

- 공정상 우기까지 완료되지 않은 지구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하여 가제방·가배수로 설치 등 우기대책에 만전을 기하고, 수해취약지구에는 장비 및 인력을 상주시키기록 하였다.
- 또한, 건설교통부에 6월15일부터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한강·낙동강 등 전국 5개 홍수통제소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본격적인 홍수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.